

희망의 꿈을 실현하는 태안화력

한국서부발전(주)태안화력 본부



▲ 조우장 본부장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꿈틀거리는 기업이 있다기에,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태안을 향했다.

지난 10월 초일류기업으로 재인증 받아 취재를 했던 터라 이번엔 취재 길은 낯설지 않고, 오히려 아침 공기만큼이나 상쾌한 기분으로 갈 수 있었다.

드디어 오늘 목적지인 한국서부발전(주)태안화력본부(조우장 본부장)에 도착했다. 이곳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음이 역력하다.

국내의 공공발전소로는 최초로 OSHAS 18001 인증을 획득하고, 오늘 인증서 수여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이다.

500MW 6호기 총 3000MW의 발전시설을 갖춘 태안화력본부는 1999년 ISO 14001 규격과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환경친화적인 발전소로 “환경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2000년 8월에는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지난 8월에 재인증 받는 등 그동안 실적으로도만 보아도 태안화력본부가 안전, 환경, 품질의 삼위일체를 갖춘 기업임을 짐작하게 한다.

희망의 꿈을 이루는 재미년

태안화력본부는 선진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전제일주의”를 앞세워 회



망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의 꿈이 이뤄질 것이라는 자신감에 차있는 기업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2002년도에 “초일류기업” 재인증, “무재해 8배 달성”에 이어 OHSAS 18001 인증 획득이라는 현실로 나타났고, 이 기세로 2003년 “안전경영대상”에 도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지식경영과 창의적경영을 추구하는 선진기업으로의 출발이다.

또한, 선진기업으로 가는 길은 창의적이고 동기화된 전문성이 성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기술과, 전력개발과, 교육과를 신설한 것도 수익 창출은 물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것이다.

이중 수익 창출을 위해 직원에게 비전을 심어주기 위한 기술과와 소양, 필수(직무) 선택교육, 강제교육 시스템 등 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교육과가 눈에 띈다.

선진기업으로 가기 위한 안전활동

“무재해 사업장 달성”, “현장 안전보건관리 내실화”, “설비 안전성 확보의 내실화”라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아래 생산현장에서의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근절하여 세계최고의 발전소가 되기 위해 안전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하게 다른 안전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아니나 이곳 태안화력본부에 적합한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체계화시켰다.

그 중 “일일 안전·환경순시”, “잠재위험 설비 신고제 활성화”, “안전 지적서 발행 활성화”, “안전관리 삼진 아웃제 도입” 등은 무재해 8배수 목표달성과 10배수를 향하는데 밑거름이 된 활동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안전관리 삼진 아웃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현장의 선 안전조치 후 작업과 직원(협력업체 직원, 인부 포함)들의 안전수칙 준수의 습관화를 유도하는 제도로



카메라 고발제와 교통위반 카드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OHSAS 18001 인증 획득

태안화력본부는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보건경영을 위한 OHSAS 규격인증 획득에 도전했다. 2002년 5월부터 대한산업안전협회의 기술자문을 받아 OHSAS 18001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를 한 이후 11월에 SGS-ICS 인증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이는 국내 공공발전분야에서 최초로 획득한 것으로 시장 개방을 통한 무한 경쟁시대에 대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이다.

계미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해에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시작한다. “희망을 가지고 살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조우장 본부장은 말한다.


희망찬 계미년에 반드시 “안전경영대



상”을 받기를 기원하며, 무재해속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매진하길 바란다.

끝으로, 산을 좋아하고, 지난 12월 30일에 태백산에서 새해의 부푼 희망을 안고 왔을 조석호 부장의 “부정적인 사고는 될 일도 안되게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라는 한마디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가는데 한번 되세기게 하는 말

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추구하는 태안화력본부가 선진기업으로 우뚝서길 다시 한번 기원한다.

올 2003년에도 긍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무재해 9배, 10배를 실현시켰으면 한다. 

〈최종덕 기자〉